

광주 '빅 사이즈' 의류 전문점이 뜬다

크레빅 등 영업... 편집숍까지 합하면 20여곳

서구화된 체형으로 수요 증가... 제품도 다양화

광주 남구에 사는 주부 김모(46)씨는 '빅사이즈'로 불릴 정도로 체구가 크다. 철마다 옷을 살 때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지만 이전 다르다. 좀 뚱뚱하다 싶은 김씨 같은 여성을 위해 '77'(허리 둘레 75~80cm)은 기본이고 '88'(허리 둘레 85~91cm) 이상 큰 옷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이 지역에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들보다 체구가 커 구매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서구화된 체형으로 빅사이즈·롱사이즈 등 '특수사이즈'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빅사이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주목받고 있다. 매장이 늘면서 빅사이즈 의류 또한 다양해지고 화려해져, 수요 또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는 (주)빅앤빅에서 만든 여성 큰 옷 전문매장 '크레빅'을 비롯해 '블랙 앤 화이트', '그여자인 집'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맞춤형 사이즈와 산뜻한 디자인으로 특화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숍까지 생겨 성업중이다.

업계는 도매시장 등에서 빅사이즈 옷을 구입,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편집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가게까지 합하면 광주 지역에만 2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빅사이즈 전문점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체격이 상대적으로 큰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기능성과 함께 화려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빅사이즈 의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빅사이즈 옷들이 화려해진 데는

온라인 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몰이 활성화되면서 특수사이즈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옷들이 만들어졌고 그 만큼 제품도 다양화했다.

최근에는 매장 직원과 대면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다, 직접 입어볼 수 있고 맞춤형으로 변형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크레빅 금남로점 채연숙 매니저는 "빅사이즈 옷의 특징은 사이즈가 넉넉하면서도 편안함을 갖췄다는 점"이라며 "계절마다 유행에 맞는 큰 옷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이들의 비만 비율이 늘어나면서 매장을 찾는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어 이곳의 단골이었다는 정모(48·광주시 북구 신용동)씨는 "그동안 디자인이나 색상을 따질 여유가 없이 사이즈만 맞는 옷을 일반매장에서 구입했는데 이곳에선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색상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산 가격에 몸에 딱 맞는 넉넉한 옷을 살 수 있어 대만족"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류업체들이 '몸짱' 열풍에 편승해 날씬하게 보이는 의류 제작에 중점을 두어 체구가 큰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최근에는 의류업체들도 사이즈가 큰 옷을 일정량 생산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늘리고 있어 큰 옷 시장의 확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일 크레빅 금남로점 채연숙 매니저가 유행하는 빅사이즈 옷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5.64 (+6.73)	▼ 금리 2.34% (-0.02)
▲ 코스닥 580.42 (+4.86)	▼ 환율 1039.90원 (-0.10)

광주은행, 은행권 최초 '중기 금융박람회'

DJ센터서 29~30일

광주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박람회'를 개최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2014 중소기업금융박람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기관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금융박람회는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소상공인공단, 신용투자유치와 관련된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박람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 등에 대해 입체적인 토론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행사기간 지역 중소기업과 여신지원도 협약을 체결해 자금조달 고충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는 지식재산이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사업전망이 있는 기업, 유망 창업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및 기술금융지원 활성화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각 테마별 29개 부스에서는 전문상담 인력이 1:1 현장 직접상담을 진행한다. 대출, 보증상담과 함께 수출입·외환, 창업·벤처, 소상공인,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입체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 부스에서는 즉석에서 자금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약식심사를 거쳐 지역 중기에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올해의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4년 박삼구 회장의 큰형인 고 박성용 명예회장이 이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 형제가 수상한 것은 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박 회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시상식에서 국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Montblanc de la Culture Arts Patronage Awards)은 독일의 명품 브랜드인 '몽블랑'에서 세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자 지난 1992년에 제정한 상이다. 매년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각 국가의 현직인 문화예술 후원자를 선정, 시상한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세입자 권리 강화 긍정적... 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 상가 임차권·권리금 법으로 보호 문제없나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담긴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부터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장치가 생겼다"면서 "세입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임차인 간에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권리금은 건물주인이나 임대인이 리모델링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장하기 어려운 돈이었다"며 "권리금을 양성화해 선의의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부작용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컸다. 우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다양한 성격의 권리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다.

선종필 상가뉴스레터 대표는 "국토부가 권리금 선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다"며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가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권리금 선정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세금 문제도 대두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던 권리금이 양성화되

면서 과세 자료로 쓸 수 있게 돼 제도정착에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시 다단계계약서 작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대료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할 당시 상가 임대료가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권리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주인으로서 임대료 상승 유혹이 커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5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신용등급 BBB로 상향... 워크아웃 졸업 호재

한국신용평가가 금호타이어의 신용평가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한기평과 나이에 이어 3개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상향 조정 받아 연말 워크아웃 졸업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24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우수한 시장지위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구조, 수익성 및 재무구조의 점진적 개선 추세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교체용 및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사업기반, 기술력 및 생산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역량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시장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2014년 상반기에 연결기준으로 11.3%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다"고 언급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BBB- 안정적 등급을 받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기업신용등급의 안정적 평가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금 조달, 대내외 신인도 향상 및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공금연적 (㎡) 78/75

선착순 마감임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양방향 공사 예정(편리한 교통환경의 핵심)으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곡청솔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노블리 DONGSUNG

소재 (주) 동성노블리·(주)가성리츠 소재 동성중합건설(주)

062-385-308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둑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